

09

September 2026
vol. 308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tyle for Men



H U M A N B E I N G
BOUCHERON
CARTE BLANCHE HIGH JEWELRY COLLECTION

CHANEL

HIGH JEWELRY

COLLECTION N°5

샤넬 화인 주얼리에서 대담한 기술력과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아이디어의 결합이라는 창의적 표현이 담긴 55.55 네크리스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네크리스는 N°5 향수병의 모든 코드를 재현한 디자인으로, 55.55캐럿이라는 인상적인 무게로 커팅 된 다이아몬드가 가운데 위치하며 700여 개의 다이아몬드가 주위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완벽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탐색하는 일. 더 크고 무거운 원석을 찾기보다 완벽한 퀄리티의 스톤을 찾는 것,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접근법입니다.

이 특별한 작품은 이제 샤넬 하우스의 유산 속에 남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 시킵니다. 샤넬의 창작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N°5 네크리스. 18K 화이트 골드*와 다이아몬드.
55.55캐럿 에메랄드 컷 DFL Type IIa 다이아몬드.

*WHITE GOLD WITH A THIN LAYER OF RHODIUM PLATING FOR COLOR

Hermès, ride on!





omegawatches.com



Constellation
FOREVER TIMELESS

Ω
OMEGA

Contents

SEPTEMBER 2026 / ISSUE.308

10_SELECTION 선선한 바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 포근한 니트와 포인트가 될 백 & 슈즈, 산뜻한 컬러의 액세서리로 기분 좋은 트레블 룩을 연출한다.

12_SELECTION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가볍게 근교로 떠나는 순간. 클래식한 위치와 슈즈부터 넉넉한 수납력을 갖춘 백까지, 워크엔드 트레블을 위한 에센셜 아이템.

14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16_상하이 느리게 산책하기, 건축과 미술 사이로 황푸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푸둥에는 동방명주와 상하이 타워 같은 초고층 빌딩이 솟아 있고, 서쪽 푸시의 와이탄에는 19세기 말부터 형성된 유럽풍 건축물이 늘어서 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도시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는 풍경은 상하이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다. 하지만 조금 천천히 걸어보면 다른 모습이 보인다.

18_올가을 아트 워크를 풍성하게 만든 세 가지 풍경 키아트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동행한 지도 올해로 5년째. 5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만큼 두 아트 페어가 국내외 미술계에 남긴 변화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품 거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되지만 올해 아트 워크에서 눈에 띈 변화는 거래에만 머물지 않았다. 페어장을 벗어나 브랜드 공간과 한옥, 건물 외벽은 물론 거리까지 전사의 무대로 활용되며 서울 곳곳에서 미술을 만나는 장면 역시 한층 풍성해졌다.



44 34



16



매년 부쉐론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클레어 슈완이 선보이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 '까르뜨 블랑슈'에서 'Human Being'을 공개했다. 실험적인 소재와 독특한 기법을 적용한 네크리스와 링 5개의 주얼리 세트를 선보인다.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으로 주얼리를 뛰어넘는 감동을 선사한다. 문의 080-822-0250

stylechosun.co.kr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14



31

20_CELESTIAL ICONS 문익치의 마학을 새롭게 담은 스피드마스터 38부터 다채로운 컬러와 주얼리 디테일로 확장한 컨스텔레이션까지, 오메가를 대표하는 두 컬렉션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본다.

24_HUMAN BEING 오직 인간만이 지닌 독창적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부쉐론의 2026 까르뜨 블랑슈 컬렉션.

30_BETTER WITH TIME 시간이 흐를수록 손목의 형태에 맞게 길들고, 색과 질감에는 자연스러운 에이징이 더해져 고유한 멋을 완성하는 레더 스트랩 워치.

31_ANOTHER ROUND 남자의 손목 위로 드러나는 은은한 존재감.

32_GET THE LIST 이번 가을, 그의 취향이 향하는 곳.

34_TAKE OFF 새로운 시즌, 새로운 스타일로의 여정 출발! 2026 F/W 남성복 뉴 룩.

42_THE NEW LUXURY '무엇을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 건강과 휴식, 미식과 문화 그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까지,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 새로운 럭셔리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파크루쉬 서울원'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44_스쿠먼, 사적인 럭셔리가 되다 거칠 것 없이 성장 가도를 달리던 상하이의 위용과 속도에 눌러 이 메가시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시절에도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던 프렌치 컨셉션. 고택을 개조한 럭셔리 호텔은 많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온 공동 주거 양식인 스쿠먼을 호텔로 삼다니. 올해 〈포브스 트래블 가이드〉 5성에 이름을 올린 카펠라 상하이 지안에 리의 독특한 발상이 호기심을 불러왔다.

45_FRAME BY FRAME 같은 순간도 어떤 카메라로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된다. 성능뿐 아니라 촬영하는 방식과 취향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 지금, 각기 다른 기능과 쓰임으로 저마다의 사진을 완성해줄 카메라를 모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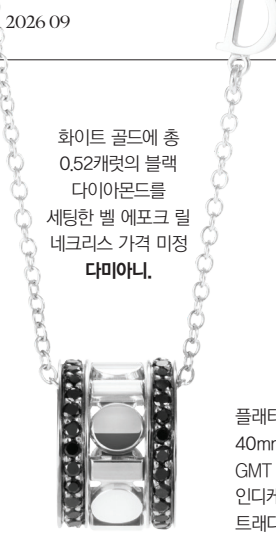
46_EDITOR'S PICK 가을 무드를 더하는 메이크업과 프로그레스부터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스킨케어까지, 이달의 뷰티 리스트.



PESERICO



AP BEAUTY
ap-beauty.com



화이트 골드에 총 0.52캐럿의 블랙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 에포크 릴 네크리스 가격 미정 **다미아니**.



플래티넘 소재의 40mm 케이스에 GMT 기능과 낮·밤 인디케이터를 갖춘 트래디션 GMT 7067 가격 미정 **브레게**.



코튼과 카시미어를 혼방한 부드러운 소재의 플레인 화이트 스웨트셔츠 1백659만원 **할프 로렌 퍼플 라벨**.



폴리우레탄 소재에 간결한 디자인의 잭 벅킷 햇 가격 미정 **에르메스**.



메탈 소재의 볼드한 프레임과 와이드 렌즈가 조화를 이루는 스피드 월드 선글라스 80만원대 **로에베**.



플래티넘 밴드를 감싸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골드 모티브가 리드미컬하게 이어지는 티파니 아이콘 스톤 링 가격 미정 **티파니앤코**.



비타자하 집단의 핑크 스킨 메탈 버클을 포인트로 장식한 옐로 캔버스 벨트 1백10만원대 **토조**.



18K 옐로 골드 케이스와 블랙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한 39mm 태그호이어 캐러라 크로노그래프 가격 미정 **태그호이어**.



키키 그레이 캔버스에 펜디 1925 스텔스 프린트와 백 참으로 포인트를 준 투어리스트 백백, 26×38×18cm 가격 미정 **펜디**.



부드러운 카프 스킨 소재와 유연한 실루엣이 특징인 비토리아 템페스타 솔더백, 24×9×4.5cm 가격 미정 **둘체앤가바나**.



코튼 소재에 포켓 주머니와 메탈 버튼을 장식해 유틸리티 무드를 배가하는 세일러 키고 맨 쇼츠 가격 미정 **디올**.



18K 골드에 화이트 큐빅 지르코니아를 세팅한 매트릭스 브레이슬릿 27만9천원 **스와로브스키**.

다미아니 02-515-1924 로에베 02-3479-1785 브레게 02-6905-3571
스와로브스키 02-1522-9065 에르메스 02-542-6622 에트루 02-3446-1321
태그호이어 02-3479-6021 토조 02-3448-8233 티파니앤코 02-6250-8620
펜디 02-544-1925 프라다 02-3442-1831 둘체앤가바나 02-3442-6888
디올 02-3480-0104 할프 로렌 퍼플 라벨 02-3438-6235

스타일리스트 이상은 에디터 신영림



Brilliant Black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다. '블랙'이란 컬러가 주는 독보적 아름다움.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차례대로) 불가리 비제로원 브레이슬릿 로마 건축물의 대담함과 시대를 초월한 미학을 담은 디자인의 컬렉션으로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블랙 세라믹으로 완성해 독보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1천2백10만원. 문의 02-6105-2120

쇼파드 해피 하트 브레이슬릿 18K 에디션 로즈 골드 밴드에 옉스스로 완성한 메종의 아이코닉한 하트 모티브와 0.05캐럿의 무빙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브레이슬릿 7백12만원. 문의 02-6905-3390

부채로 세팅 보행 옉스 소울 링 1968년 탄생한 메종의 아이코닉 컬렉션으로, 블랙 옉스 모티브를 감싸는 옐로 골드 비즈와 트위스트 밴드가 유니크함을 자랑한다. 3백35만원. 문의 080-822-0250

반클리프 아펠 비티지 알함브라 펜던트 행운을 상징하는 네 잎 클로버 모티브로 완성한 컬렉션의 네크리스로, 18K 옐로 골드에 옉스를 세팅해 모던하고 클래식한 무드를 선사한다. 4백77만원. 문의 1877-4128

레포시 앙티메 4-로우 블랙 골드 링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에 위치한 앙티메 협곡에서 영감받은 시그니처 라인인 링. 블랙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완성했다. 2천4백14만원. 문의 02-2118-6058

프레드 방 드 쉬크르 에보니 옐로 골드 링 창립자 프레드 사무엘이 유년 시절을 보낸 리우데자네이루 해안의 찬란한 태양 빛과 산에서 영감받은 컬렉션의 링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 18K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에보니 소재 카보숑을 매치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다미아니 에덴 브레이슬릿 우아한 곡선미가 돋보이는 뱀 모티브의 핑크 골드 밴드를 블랙 세라믹으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로 뱀의 눈을 표현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에디터 정성민

이시진호 김지현

INSIGHT



Bloom in Gold

사철을 상징하는 코드 중 하나인 까멜리아는 실제 꽃을 연상시키는 생생한 디자인과 둥근 꽃잎의 부드러운 곡선미가 특징이다. 가시도 향기도 없는 이 꽃의 매력에 일찌감치 매료된 가브리엘 사넬은 이를 의상은 물론 백과 주얼리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했다. 특히 파인 주얼리에서는 꽃잎을 이루는 각각의 요소를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섬세하게 표현해 어느 각도에서 봐도 풍부한 광채를 느낄 수 있다. 대표적인 라인으로는 까멜리아 블룸, 부통 드 까멜리아, 엑스트레 드 까멜리아 등이 있으며, 부통 드 까멜리아 이어링은 로즈 골드와 다이아몬드로 꽃잎의 유연한 곡선을 구현해 사넬 특유의 정교하고 우아한 미학을 엿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The Scent of Autumn

에르메스 바레니아 플랭 플레르는 하우스의 헤리티지 가족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플로럴 시프레 계열의 오 드 퍼퓸이다. 조향사 크리스틴 나이에의 손끝에서 탄생했으며, 화이트 릴리와 오렌지 플라섬 등 섬세한 플로럴 노트에 복은 참나무와 가이오 파출라의 깊이 있는 향조를 더해 우아하면서도 관능적인 분위기를 표현했다. 이 향수의 가장 큰 특징은 채취가 불가능한 식물인 미라클프루트에서 찾아낸 따스한 말린 살구 향으로, 그 어떤 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시프레 향을 풍긴다. 성숙하고 대담한 여성을 연상시키는 바레니아 플랭 플레르 오드 퍼퓸과 함께 깊고 차분한 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해보자. 100ml 28만5천원. 문의 02-310-5174



Precious Links

볼드한 링크 디자인과 은은하게 빛나는 골드로 완성한 주얼리.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그라프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컬렉션 라지 체인 브레이슬릿**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에서 영감받은 체인 링크에 총 0.9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5천4백98만원. 문의 02-2256-6810 **불가리 비제로원 네크리스** 옐로 골드와 블랙 세라믹이 조화를 이루는 스몰 라운드 펜던트가 모던한 분위기를 배가한다. 4천2백60만원. 문의 02-6105-2120 **티파니앤코 티파니 하드웨어 라지 링크 브레이슬릿** 시그니처 게이저 링크를 대담하게 연결해 단독으로 착용 시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가격 미정. 문의 02-1670-1837 **포페 애센셜 컬렉션 플렉스잇 링** 유연하게 움직이는 플렉스잇(flex'it) 기술을 적용해 손가락에 편안하게 밀착하며 포인트를 준다. 5백만원대. 문의 02-6905-3345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New Attitude
프라다가 새로운 시즌을 맞아 2026 F/W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프라다 엠베서더인 배우 헨리 사파가 프라다 벨트 백과 함께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간결한 실루엣을 따라 두른 벨트와 버클 디테일로 클래식한 토트백을 완성했으며, 부드러운 숏아이 및 나파 가죽 안감으로 완성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선사한다. 가죽 핸들로 가볍게 들거나 탈착 가능한 숏더 스트랩을 활용해 크로스보다 백으로 매치하는 등 데일리 무드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80-522-7199



Nature Beauty
파리의 담쟁이덩굴에서 영감받아 생명력과 유연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이아몬드와 골드로 재해석한 상징적인 주얼리 라인인 리에르 드 파리(Lierre de Paris). 창립자 프레데릭 부셰론이 팔레 루아얌 아카데미 부근에서 자유롭게 뿔어나가는 담쟁이 잎의 곡선에 매료된 이후 메종의 핵심 모티프로 자리 잡은 이 컬렉션에서 신제품을 선보인다. 풍성한 담쟁이덩굴 잎사귀를 정교하고 풍성하게 표현해 독보적 존재감과 볼륨감을 선사한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크와 네크리스, 그리고 브로치로 구성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특별한 피스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080-822-0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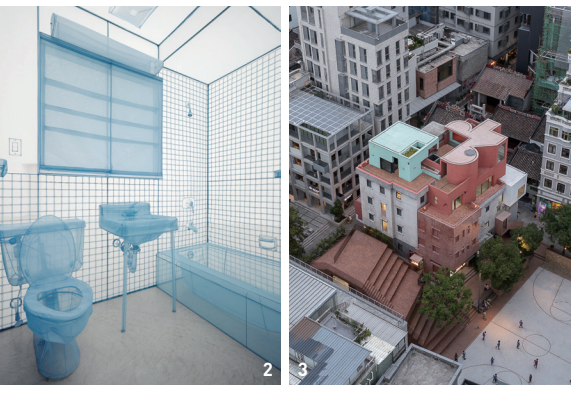
Solid Steps

정교한 실루엣과 클래식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남성 드레스 슈즈.



(왼쪽부터 차례대로) 송아지가죽 소재에 스티칭을 더하고, 어퍼를 아웃솔에 직접 봉제하는 블레이크 제법으로 슬림하고 유려한 형태를 완성했다. 1백79만원 **파라기오**. 문의 02-3430-7854. 블랙 레더에 광택감 있는 토 캔과 레이스업이 조화를 이루는 톨체세라 슈즈 1백47만원 **둘체앤가바나**. 문의 02-3442-6888. 브라운 레더에 워밍 기법을 적용한 세르지오 로퍼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문의 02-6200-7799. 골드 톤의 'Dior' 레터링과 원형 메달 장식이 포인트인 맨즈 데비 슈즈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280-010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ARTS & THE CITY



홍콩의 다음 장면을 여는 M+
'키아프리즈', '아트 워크 도코' 등 저마디의 축제를 펼치면서 '문화 예술 허브'라는 타이틀을 놓고 아시아 주요 도시들이 자웅을 겨루는 동안에도 홍콩은 늘 존재감을 키워왔다. 매년 춘삼월 열리는 아트 바젤 홍콩과 더불어 그 중심에는 시구를 문화 지구(WKCD)의 간판인 M+가 있다. 현대미술만이 아니라 디자인, 건축, 패션, 영상과 대중문화 등 시각적으로 인간의 삶과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비주얼 문화 센터'라는 정체성을 내세우는 기관이다. 율가를 우리에 알상까지 미술의 기운으로 수놓는 아트 워크를 맞아 서울을 찾은 M+ 대표단에는 M+ 이사회 의장 파울로 풍, M+ 아티스틱 디렉터 겸 수석 큐레이터 정도권, 시구를 문화 지구 최고경영자 린덴마오와 왕공신 등 동시대 미술계 주요 작가들도 M+에 모인다. 도시 풍경 자체를 전시장으로 삼는 M+ 파사드에서는 아트 바젤 홍콩과의 협업을 이어가는 한편 사라 제, 팻트 헛, 테오 트리안타필리디스의 새로운 커미션을 선보인다. 동시에 M+ Restored를 통해 홍콩 뉴웨이브의 역사적 영화들을 복원하고, 아시아 아방가르드 필름 컬렉션을 세계 각지로 순회시키며 홍콩이 축적해온 무형 이미지의 유산도 국제 무대로 확장한다. 풍파무 센터와의 파트너십, 서울과 유럽·북미를 잇는 순회전, 아시아 문화 예술 전문가를 위한 M+ 아카데미의 출범은 이런 방향을 더욱더 분명히 보여준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그저 '홍콩 미술을 보여주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홍콩을 출발점으로 아시아, 그리고 세계 곳곳의 작가와 기관을 연결하고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겠다는 지향점을 공고히 하고 있다. 글 **고성연**

1 Lo Yuk Ying, Photograph, Film Biweekly, Lin Ching-hsia (actress), 1981 © Lo Yuk Ying 2 서도호, Bathroom, 348 West 22nd St., Apt. A, New York, NY 10011 (detail), 2003 © Do Ho Suh Courtesy of the artist, Lehmann Maupin New York, Seoul, and London, and Victoria Miro 3 URBANUS, Hybrid Building (2020-2023), Shenzhen © Zhang Chao ※1-3 이미지 제공_M+, Hong Kong



Dress Check!

피아제가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알티플라노 38mm 모델을 20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다. 메종을 대표하는 드레스 워치 컬렉션 알티플라노의 헤리티지를 이어가는 이번 신제품은 피아제의 올트라-신 워치메이킹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우아함을 담았다. 새로운 알티플라노 오리진은 로즈 골드 케이스와 화이트 골드 케이스,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며 각각 그린 카프 스킨 스트랩과 블루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해 완성했다. 메종을 대표하는 올트라-신 수동 무브먼트 430P를 탑재해 피아제가 그동안 축적해온 기술력과 장인 정신을 계승한다. 피아제만의 독창적인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헤리티지가 조화를 이루는 알티플라노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세련된 타임피스의 표본이다. 문의 1877-4275



Forever a Muse

나폴레옹의 아내라는 수식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과 탁월한 미적 감각, 자신만의 신념을 지녔던 프랑스 황후 조세핀 드 보아르네에게서 영감받아 쇼메의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자리 잡은 '조세핀 컬렉션'이 또 한번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으로 진화한다. 이마를 장식하는 헤어 요너먼트인 아그레트(aigrette)에서 착안한 아이코닉하고 우아한 V 세이프를 중심으로 현대 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여러 피스를 자유롭게 레이어링하고 스타일링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특징. 섬세한 사파이어를 세팅해 은은한 존재감을 완성한 트라움프 드 쇼메 링부터 파베 세팅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V 밴드가 유려하게 교차된 디자인의 조세핀 하이 주얼리 파퓰르 오픈워크 브레이슬릿, 아코야 진주를 더해 메종에 선보이는 조세핀 펜던트와 이어링, 그리고 그래픽적인 실루엣으로 새롭게 단장한 V 모티브의 조세핀 이어링까지, 우아함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피스들로 메종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한다. 문의 02-1670-1180

상하이 느리게 산책하기, 건축과 미술 사이로



웨스트번드, 산업의 기억이 예술과 산책으로

상하이의 날씨를 가리켜 흔히 '겨울에는 습하게 춥고, 여름에는 습하게 덥다'고 한다. 그런 '습습한' 도시에서 8월 초 건축 산책이 가능했던 것은 날씨의 고마운 변덕 덕분이었다. 태풍을 앞뒤서인지 은근히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을 타고 의도치 않게 거의 일주일이나 이어진 산책은 출장길에 전시 관람차 들른 루지엄 웨스트번드에서 시작됐다. 사실 루지엄 웨스트번드는 건물 안에서 전시를 보고 돌아가는 미술관 이라기보다, 건물 밖으로 사람의 걸음을 이어주는 미술관에 가깝다. 이곳을 설계한 아틀리에 데사우스의 류이춘은 과거 석탄을 실어 나르던 부두의 하역 구조물을 없애지 않고 건축의 일부로 활용했다. 옛 구조물은 새로운 건축과 엮여 진입 동선이 되고, 미술관 앞의 열린 공간은 웨스트번드 수변 공원으로 이어진다.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술관과 공

원, 강변을 하나의 동선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로 전시를 보고 나오자, 원래는 다른 일정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바깥을 향해 뻗어 있는 길과 수변 공원이 마치 '조금 더 걸어보라고' 권하는 듯했다. 나무 데크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황푸 강 건너편으로 상하이의 마천루가 펼쳐졌다. 강바람을 맞으며 걷다 결국 신발을 벗고 맨발이 됐다.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끈적이지 않는 데크 바닥의 감촉,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 멀리 펼쳐진 도시 풍경. 어찌 보면 특별한 것 없는 산책이었지만 그 순간 상하이라는 도시가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시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는 여행에서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순간이다. 그렇게 걷다 보니 이번에는 웨스트번드 뮤지엄이 나타났다. 일부러 찾아간 것이 아니라, 걷다가 마주쳤다. 마침 파리 퐁피두센터와의 협력 전시가 열리고 있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 처음으로 이번에는 상하이를 제대로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웨스트



- 1 상하이의 대표적 현대미술관 롱 뮤지엄 웨스트번드. 옛 북표 부두의 석탄 하역 시설을 품은 대지에 류이춘이 설계해 2014년 문을 열었다. 거대한 노출 콘크리트 '우산형 아치' 구조와 기존 산업 시설인 석탄 호퍼가 한데 어우러져, 과거의 산업적 풍경을 동시대 미술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났다. 현재 홍콩 아티스트 월리스 찬의 대형 전시 〈Vessels of Other Worlds〉가 열리고 있다(10월 25일까지). 이미지 제공_Long Museum
- 2 황푸 강 서안의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웨스트번드 뮤지엄. 2023년 프리츠커상을 받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를 맡아 2019년 개관했다.
- 3 과거 항공유를 저장하던 시설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난 탱크 상하이.
- 4 푸시의 옛 상하이 조계, 와이탄 인근에 자리한 록번드 아트 뮤지엄(RAM). 1932년 아르데코 양식으로 지어진 영국 왕립아시아학회 건물을 치퍼필드가 외관을 보존하면서 개조해 2010년 현대미술관으로 문을 열었다.
- 5 록번드 아트 뮤지엄 앞의 뮤지엄 플라자. 미술관과 와이탄의 도시 풍경을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트번드 뮤지엄은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설계했다. 외관상 그리 눈에 띄지 않는다. 특히 2023년 프리츠커상을 받은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의외일 수 있다. 몇 년 전 처음 이 건물을 마주했을 때만 해도 '생각보다 심심하네' 심었다. 건물은 안전하고 강변 풍경 속에 거의 배경처럼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변을 따라 한참 걸어본 다음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았다. 건물이 앞에 나서지 않으니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으로, 공원으로, 주변 건축물로 향한다. 건축이 주인공이 아니라 도시의 배경이 되는 것.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치퍼필드의 구상이 한참을 걸은 뒤에야 마음에 와닿았다. 조금 더 걸으면 돌고돌 거대한 탱크들이 나타난다. 과거 항공유를 저장하던 시설



이 전시와 문화 공간으로 바뀐 '탱크 상하이'이다. 기능을 잃은 산업 시설 사이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그 길은 다시 강변으로 이어진다. 이곳에서는 건축과 미술, 공원과 산책의 경계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강을 사이에 둔 두 시대

"오늘날 세계에서 이처럼 다양한 건축물이 움직이며, 우뚝 선 채 서로를 비추고 있는 도시는 상하이 말고는 없을 것이다." 〈상하이 모던〉을 읽으며 만났던 문장이 와이탄에 서자 실감 났다. 황푸 강을 사이에 두고 푸시는 19세기의 도시를, 푸둥은 21세기의 미래를 보여준다. 와이탄의 오래된 건물들을 등지고 강을 바라보면



동방명주와 상하이 세계 금융 센터, 진마오 타워, 상하이 타워가 차례로 시야에 들어온다. 한쪽에는 국제도시 상하이를 만들었던 과거가, 다른 한쪽에는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조성된 미래 도시가 있다. 와이탄에 서서 강을 바라보는 순간, 상하이의 과거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서로 다른 시대가 지워지거나 교체된 것이 아니라 강을 사이에 두고 공존하는 것이다. 푸둥으로 건너가면 도시를 걷는 방식도 달라진다. 오래된 건물 사이의 골목 대신 거대한 건축물 사이를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가 중요해진다. 데크와 광장, 지상과 지하의 보행로가 서로 연결되면서 마천루 사이에서도 사람의 속도도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 그 흐름을 따라가다 만난 푸둥 미술관은 장 누벨이 설계했다. 황푸 강을 향해 열린 거대한 유리 면을 통해 와이탄의 오래된 건물과 강물, 강 위를 오가는 배와 사람의 움직임을 전시장 안으로 끌어들었다. 미술관이 도시를 바라보는 창이면서 동시에 도시의 일부가 되는 방식이다.

조금 더 걸으면 상하이 박물관 동관이 나온다. 세기 공원의 녹음과 맞닿은 이곳에서는 광장과 건물, 공원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그제야 푸둥의 스카이라인이 단순히 높은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미술관과 박물관, 공원과 광장까지 연결된 하나의 도시 풍경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채의 집에서 만난 상하이

다시 오래된 상하이로 돌아와보자. 상하이는 예로부터 여러 세계가 부딪히며 형성된 도시였다. 중국 최대 항구로 성장한 이곳에는 조계가 형성되며 서구의 건축과 생활 방식이 들어왔고, 와이탄의 화려한 건축은 국제도시의 얼굴인 동시에 식민주의의 흔적이기도 했다. 스쿠먼(石庫門)은 그런 근대 상하이에서 태어난 혼합의 결과물이다. 중국 전통 주거의 중정 구성과 서구식 연립주택이 결합된 상하이 특유의 주거 형식으로, 좁은弄堂(弄堂)을 사이에 두고 집이 이어졌다. 스쿠먼에서 중요한 것은 집 한 채의 형태보다 집과 집 사이의 골목이었다. 사람들이 만나고 아이들이 뛰어놀며 일상이 펼쳐지는, 집과 도시 사이의 반공공적 공간이었다. 그래서 스쿠먼은 단순한 건축 유형을 넘어 근대 상하이의 삶을 담은 도시의 그릇이었다. 상하이 마당루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역시 스쿠먼 가운데 하나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집이었던 공간이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나라의 독립을 논하고 준비하던 장소였다. 그런 스쿠먼이 도시가 커지면서 많이 사라졌다. 남은 공간들은 신텐디에서는 상업·문화 공간으로, 텐즈팡에서는 작업실과 습, 카페가 들어선 골목으로, 지안예리에서는 호텔로 이용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채의 집이 이어진 골목이 아니라, 한 채의 고택을 찾아가본다. 프라다 롱자이(Prada Rong Zhai)이다. 1918년에 지은 롱자이는 중국 기업가 쑹중징 가문의 저택이었다. 쇠락했던 이 고택을 프라다가 복원해 2017년 다시 열었고, 이후 전시와 문화 행사를 통해 새로운 삶을 이어왔다. 그리고 2025년에는 왕가위의 작업이 이 공간에 더해졌다. 프라다와 협업한 '미상 프라다 롱자이(Mi Shang Prada Rong



- 6 중국 화동건축설계연구원 설계 팀이 디자인해 1994년 완공한 동방명주탑은 높이 468m의 방송 송신탑으로, 공공 인프라에 전망대와 관광 기능을 결합했다. 7 역사적 주택을 정교하게 복원한 프라다 롱자이. 1918년 지어진 저택의 원형을 세심하게 되살리는 한편, 현대적인 문화·전시 공간으로 재해석했다. 8 상하이의 대표적인 근대 주거 양식인 스쿠먼이 남아 있는 지안예리. 서양식 주거와 중국 전통 건축 요소가 어우러져 독특한 인상을 준다. 1930년대 조성된 이 주거 단지는 오늘날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 호텔로 재탄생했다. 이미지 제공_Capella
- 9, 10 푸둥 세기 공원 인근에 자리한 상하이 박물관 동관. 통지 대학 건축설계연구원이 설계한 연면적 약 11만㎡ 규모의 문화 시설로, 전통적인 중국의 공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건축이 특징이다. 2024년 전면 개관해 중국 고대 예술을 중심으로 한 문화 거점이 됐다. 11 옛 발전소를 현대미술관으로 탈바꿈시킨 파워 스테이션 오브 아트(Power Station of Art, PSA). 2010년 상하이 엑스포 때 미래관으로 사용된 발전소를 개조해 2012년 문을 연 중국 본토 최초의 국립 현대미술관이다. ※ 2-7, 9-11 이미지 Photo by 고성연

Zhai)'는 레스토랑 하나를 더한 것이 아니라 영화와 미술, 디자인과 미식을 저택의 역사 위에 포개놓은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다. 왕가위의 영화적 미학과 상하이풍 목판화, 프라다의 아트 컬렉션이 오래된 방과 복도에 겹쳐지며 시간을 품은 공간에 묘묘한 표정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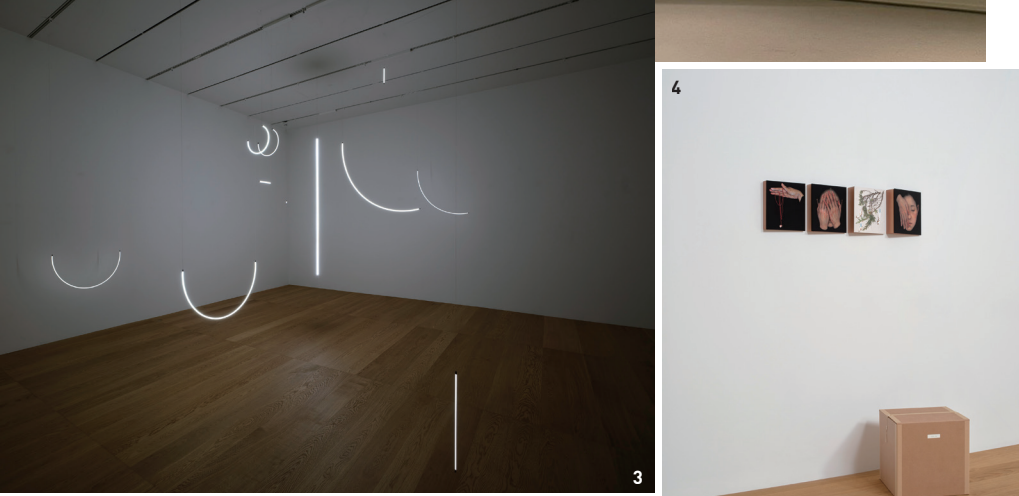
검침이 빚어내는 풍경

상하이를 걷는 동안 자주 눈에 들어온 것은 건축물의 형태보다 그 안팎에서 이어지는 삶이었다. 오래된 공장은 미술관이 되고, 미술관은 공원과 강변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하고, 낡은 골목에는 다시 가게와 사람들이 들어왔다. 그런 생각을 하며 황푸 강 남쪽의 PSA를 찾았다. 상하이의 옛 발전소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바꾼 이곳에서는 리나 보 바르디의 건축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 브라질에서 활동한 그녀는 기존 건물을 허물기보다, 이미 그곳에 쌓인 시간과 흔적을 새로운 삶 속에 끌어들이는 건축을 했다. 상파울루의 SESC 폼페이아가 대표적이다. 원래 드림통 공장이었던 건물 구조를 남겨두고 그 안팎에 스포츠와 문화, 휴식과 만남을 위한 공간을 새롭게 조성했다. 골장으로 들어오면 길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됐다. 건축을 보존하는 일이 곧 사람들의 삶을 다시 불러들이는 일이 된 셈이다. 이 전시를 보고 나오니 앞서 보았던 상하이 풍경들이 다시 떠올랐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한자리에 있고, 중국적인 것과 서구적인 것이 섞이고, 골장과 저택과 골목이 저마다의 시간을 품은 채 다른 쓰임으로 살아 있는 것. 저마다 다른 장소였지만, 과거를 지워 없애고 새것으로 바꾸기보다 그 위에 다른 시간이 포개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해와 출창길에 만난 일본 저자의 말도 그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난 상하이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도시라고 생각해." 처음에는 조금 과장된 도시 예찬처럼 들렸다. 하지만 여러 날 상하이를 걸어보고 나니 그가 말한 '멋'이 무엇인지 알 듯했다. 글 고성연(상하이 현지 취재)



키아프 서울×프리즈 서울 2026 올가을 아트 위크를 풍성하게 만든 세 가지 풍경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동행한 지도 올해로 5년째. 첫해의 뜨거웠던 관심과 비교하면 행사 자체에 대한 열기는 다소 잦아든 듯하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만큼, 두 아트 페어가 국내외 미술계에 남긴 변화는 오히려 보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 작품 거래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확인된다. 올해 프리즈 서울에서 유명국의 작품이 22억~25억 원에 판매되며(국제갤러리) 한국 작가 작품 가운데 최고 판매가를 기록했고, 작품 구매자가 북미 지역 미술관 이사회 멤버였다는 사실은 한국 근현대미술을 향한 관심이 개인 컬렉터를 넘어 미술관과 기관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올해 아트 위크에서 눈에 띈 변화는 거래에만 머물지 않았다. 페어장을 벗어나 브랜드 공간과 한옥, 건물 외벽은 물론 거리까지 전시의 무대로 활용되며 서울 곳곳에서 미술을 만나는 장면 역시 한층 풍성해졌다.



1 프리즈 라이브의 일환으로 진행된 라이언 캔더의 '더 파인드 서울'은 많은 이에게 즐거움을 주었다. 이미지 제공, 프리즈 서울
2 오민의 LP '동시, 콘퍼런스 발매'를 기념해 포럼엔스페이스에서 청음 및 전시를 진행했다. Photo by 양혜연
3 오중 개인전 <가라앉음, 앓음> 전시 모습. ©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사진: 이의록, 최요한
4 이진주, '압축하고 도약하는', 2026, 채리 원목, 아교반수 광목에 수간채색, 이장배 블랙 수제 물감. (왼쪽부터) 23.2×22×4cm, 23.2×22.3×5.2cm, 23.2×22.5×6.2cm, 23.2×23×7.7cm. © SONGEUN Art and Cultural Foundation and the Artist. All rights reserved. 사진: 이의록, 최요한
<송은×안박성 프로젝트: 생성적 형상들>에서는 1백79명(팀)의 작가가 동일한 조건으로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다.
5 '서울 라이브 DDP 2026 가을' 중 유명국×권하영의 '내 안의 산을 찾아서'. 이미지 제공, (재)서울다자이재단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전시

이번 아트 위크에서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작품은 전시장에 걸어놓는 것'이라는 기존 문법에서 벗어나 작품을 만나는 방식 자체가 다양해졌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끈 것은 프리즈 라이브의 일환으로 선보인 영국 작가 라이언 캔더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 '더 파인드 서울'(8. 31~9. 10)이다. 을지로, 한남, 청담, 삼성과 코엑스 등 서울 곳곳에 1만6천 개의 특별 제작 동전을 숨겨두고, 누구나 길을 걷다 우연히 동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람 주도권을 도시와 관객에게 넘김으로써, 작품을 찾아 도시를 걷는 행위 자체를 미술 경험으로 만들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첫날부터 SNS에는 동전을 발견한 사람들이 해시태그 #TheFindSeoul과 함께 인증 사진을 올리며 이른바 '코인 헌터'들의 의욕을 북돋기도 했다. 캔더가 관람객을 전시장 밖으로 끌어냈다면, 오민은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감각을 겹쳐놓는 방식으로 관람 경험의 지평을 넓혔다. 포럼엔스페이스에서 개최한 시간 기반 설치 작가 오민의 전시 <동시, 콘퍼런스>(8. 29~9. 6)는 영상 감상과 청음을 한 공간에 배치해 작가의 작업 세계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글과 말, 표정, 제스처, 액션에서 비롯된 소리로 구성된 동명의 LP 발매를 기념해 마련됐다. 메인 전시 공간에서는 2채널 영상 작품을 상영하고, 별도로 마련된 청음실에서는 작가의 LP를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흥미롭게도 청음실은 완벽하게 방음된 공간이 아니었다. LP를 듣는 동안 메인 공간에서 흘러나오는 영상 작업 소리가 자연스럽게 겹쳤다. 서로 다른 두 소리가 하나의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는 순간을 통해, 작가가 말하는 '동시성'을 관람객이 직접 감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존 전시의 규칙을 비트는 방식은 송은에서도 이어졌다. 송은미술대상 제정 25주년 기념 전시 <송은×안박성 프로젝트: 생성적 형상들>(8. 19~10. 10)은 거대한 스펙터클을 선보이는 대신, 역대 참여 작가 1백79명(팀)에게 동일한 크기(25×25cm)의 합판 4장이 담긴 박스를 보내며 이를 활용한 커미션 작품을 의뢰했다.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한 1백79명(팀)의 서로 다른 조형 언어는 오히려 제약이 개별 작가의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줬다. 같은 시기 송은 지하 벙커룸에서 열리는 오중 개인전 <가라앉음, 앓음>(8. 19~10. 10)은 작품과 공간의 관계를 더욱 밀도 있게 탐구한 사례다. 수장고이던 공간에 최소한의 선과 면을 더해, 공간 자체를 예술적 경험으로 바꿔놓았다. DDP의 222m 외벽을 거대한 화면으로 활용한 '서울라이트 DDP 2026 가을'(9. 3~13) 역시 전시장의 경계를 도시로 확장한 사례다.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와 유명국의 회화, 시조진 <청구영언>에 수록된 노랫말 등을 활용한 미디어 아트가 준비됐는데, 일부는 아티스트의 라이브 연주에 영상이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덕분에 미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도 자연스럽게 작품을 마주할 수 있었다.



한옥과 작품의 공명

한옥이라는 한국적 공간이 글로벌 관람객을 맞이하는 전시장으로 변신한 정도 이번 아트 위크에서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특히 선해원 아트 프로젝트 2.0 <흔들리는 것들의 안부>(9. 2~10. 31)는 한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공간과 선명한 주제 의식, 이에 어울리는 작품 큐레이션을 앞세워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흥각 서까래 아래를 가득 채운 모나 하툼의 'Web'은 거미줄처럼 가느다란 선과 유리 구로 집과 보호막, 생존의 구조를 동시에 떠올리게 하고, 로비에 자리한 최성임의 '황금이 붉은 금색 병 끈을 엮어 6.2×4.8m의 거대한 이불로 만들어 일상적인 사물을 작품의 영역으로 확장했다. 김윤수는 유묘자 방풍막으로 쓰는 PVC 비닐과 골판지를 겹치고 말아 신체와 움직임의 흔적을 풍경처럼 구현했다. 작품들은 넉넉한 여백을 두고 배치돼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창덕궁 낙선재에서 열린 포르쉐코리아 후원 의 <K-헤리티지 아트展, 이음의 선(線)>(9. 1~6)은 전통과 현대를 '선'이라는 개념으로 연결하며 또 다른 조화를 보여 주었다.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와 전통·현대 작가 48명이 참여해 1백60여 점을 선보였으며, 낙선재와 석복헌 사이에서는 옷칠, 자개와 포르쉐 크레스트를 결합한 협업 작품도 공개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고즈넉한 궁궐 풍경에 놓인 현대 회화였다. 인정한 커튼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다는 최지원의 '황금커튼'을 비롯해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롭게 제작한 몇몇 회화 작품은 전통과 현재가 이질감 없이 공존하는 장면을 선보였다. 이 밖에도 조선 14대 왕 선조의 후손이자 제12대 국회의장 윤경 이재형 선생이 1992년 작고할 때까지 거주하던 윤경고택은 2년 만에 새로운 전시를 선보이며 빛장을 열었다. 현재 진행 중인 김동희 개인전 <다시 도착한 집>(9. 2~10. 31)은 작가의 의도에 따라 계단과 다락, 지면의 높낮이를 뒤집고 재배치해 관람객이 고택의 구조를 몸으로 경험하도록 한다. 서촌의 더일마 서울 플래그십에서는 배혜움의 개인전 <Awakened>(8. 29~9. 5)가 진행되었다. 더일마 서울 플래그십의 건물 '막집'은 건축가 조병수가 1백10년 된 한옥과 60년 된 조적조 양육을 엮어 조성한 공간이다. 한옥의 투박한 목구조와 낮은 벽돌, 현대적인 추상회화가 어우러지며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처럼 올해 아트 위크에서 한옥은 더 이상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한국적 배경'에 머물지 않았다. 작품에 새로운 맥락을 부여하는 동시에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전시의 중요한 일부로 기능했다. 글로벌 관람객에게는 이처럼 작품과 전통 공간이 만나는 장면 자체가 서울에서만 가능한 또 하나의 미술 풍경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6 모나 하툼, 'Web', 2025, 수제 투명 유리 구,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블, 가변 설치. SK·포도뮤지엄 컬렉션. © SK·포도뮤지엄
선해원 아트 프로젝트 2.0 <흔들리는 것들의 안부>는 아트 위크 기간 진행된 많은 대형 전시 사이에서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7 창덕궁 낙선재에서 열린 <K-헤리티지 아트展, 이음의 선(線)> 전시 모습. 이미지 제공, 포르쉐코리아
8 김동희, '흰 계단 1', 2026, 목재에 방수 도장, 촬영: 이종근. 이미지 제공, 윤경재.
2년 만에 새로운 전시를 선보인 윤경고택에서 진행 중인 김동희 개인전 <다시 도착한 집> 전시 모습.
9 더일마 서울 플래그십의 건물 막집에서 진행된 배혜움의 <Awakened> 개인전 모습. Photo by 양혜연
10 라셉션에서부터 브랜드의 품격을 느낄 수 있었던 아만 VIP 라운지. Photo by Hye Yeon Park
11 가와마타 다다시와 협업한 작품을 선보인 올해의 루이나 아트 라운지. 이미지 제공, 루이나
12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예술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휠라의 전시 <Fila Colore>. 이미지 제공, 휠라



페어장 안팎으로 돌보인 브랜드의 행보

매년 아트 위크 기간이면 다양한 브랜드가 페어장 안팎에서 예술과 접점을 넓혀간다. 올해는 특히 페어장에 새롭게 합류한 브랜드들의 부스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럭셔리 호스피탈리티 브랜드 아만(Aman)의 VIP 라운지다. 서울 진출을 공식화한 아만은 한옥 마당에서 영감받은 VIP 라운지에 피에르 잔느레의 가구와 페르난도 라포세의 조명, 박석원·나침수·이우환·허달재·최명영의 작품을 한데 배치했다. 여기에 한식 파인다이닝 아토믹스의 카페와 스몰 바이즈, 바 제스트의 시그니처 칵테일, 프라이빗 티하우스 로한의 티 큐레이션, 아만 에센셜 컬렉션과 아만 스파를 경험할 수 있는 핸드 마사지 체험까지 더했다. 예술과 미식, 웰니스를 하나의 공간 경험으로 엮어내며 브랜드가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방문객에게 선명하게 각인시킨 것이다. 마찬가지로 올해 처음 프리즈 서울에 참가한 휠라는 전시 <Fila Colore>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예술 언어로 새롭게 풀어냈다. 휠라의 컬러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매년 하나의 색상을 선정해 전개하는 'Fila Colore' 프로젝트의 첫 번째 컬러는 스니커즈 '에사페 실버문'을 상징하는 '실버'였다. 지근욱, 김기웅, 사샤 노드마이어 작가가 저마다의 시선으로 '실버'를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고, 부스 곳곳에 '실버문'을 모티브로 한 오브제를 배치해 작품과 공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이 밖에도 매년 프리즈 서울의 오아시스 역할을 해온 삼태인 브랜드 루이나는 글로벌 아트

프로젝트 'Conversations with Nature'에서 올해 협업 작가로 선정된 가와마타 다다시의 작품과 스케치, 모형, 미니어처 조각 등을 아트 라운지에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페어장 밖에서도 브랜드와 예술의 만남은 이어졌다. 까사 로에베 서울에서는 올해 로에베 재단 공예상 수상자인 박종진의 수성작을 비롯해 작가가 직접 큐레이션한 작품 20여 점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 <Strata of Time: 시간의 층위>(9. 3~20)가, 생 로랑 서울 플래그십에서는 안토니 바카렐로가 큐레이션한 앤디 워홀 사진전 <일상의 사물들(Banal Objects)>(8. 31~9. 6)이 열렸다. 럭셔리부터 캐주얼까지, 그리고 패션과 식음, 호스피탈리티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만나는 브랜드의 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다. 이들은 미술을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자의 공간과 역사, 감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 브랜드만의 방식으로 예술을 경험하게 한다. 올가을 서울의 아트 위크는 미술관이 갤러리, 페어장을 벗어난 곳에서도 예술이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음을 저마다의 다채로운 방식으로 드러냈다. 때로는 의외의 공간에서 작품과 장소가 만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의미와 아름다움이 생겨나고, 그 만남이 새로운 시너지를 낳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길거리를 걷다가 우연히 작품을 발견하고, 오래된 한옥에서 작품과 장소의 시간을 함께 마주하고, 브랜드의 공간에서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들. 그렇게 미술은 페어장을 넘어 도시 곳곳으로 스며들었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스피드마스터는 과거의 상징적인 디자인 코드를 간직한 채 컬러와 소재로 새로운 시대의 크로노그래프를 그려낸다”

Celestial Icons

달에 오른 스피드마스터와 정밀성의 별에서 시작한 컨스텔레이션. 서로 다른 역사를 지닌 두 아이콘은 오메가만의 디자인과 워치메이킹 헤리티지를 이어오며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문워치의 미학을 새롭게 담아낸 스피드마스터 38부터 다채로운 컬러와 주얼리 디테일로 확장한 컨스텔레이션까지, 오메가를 대표하는 두 컬렉션의 과거와 현재를 들여다본다.



1 아이스 블루 PVD 다이얼에 총 1,53캐럿, 5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이 어우러진 스피드마스터 38 워치.
2 총 1,53캐럿의 다이아몬드 베젤과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이 조화를 이루며, 우아한 분위기를 강조한다.
3 아이보리 다이얼과 브라운 PVD 서브 다이얼, 18K 세드나™ 골드를 포함한 카무치노 스타일이 돋보인다.
4 매트한 블랙 바니시 다이얼과 블랙 알루미늄 베젤을 매치한 스피드마스터 38. 날짜 표시 기능을 잃어버린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332로 구동한다.
5 18K 문사인™ 골드 베젤과 그린 알루미늄 베젤 링을 조합해 바이컬러 특유의 풍부한 색감을 살렸다.
6 화이트 래커 다이얼과 블루 세라믹 베젤, 블루 CVD 코팅 핸즈와 인덱스가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38 타임피스.
7 오판린 실버 PVD 다이얼과 월 그레이 알루미늄 베젤에 세드나™ 골드 톤 다이얼을 더해 부드럽고 세련된 인상을 완성했다.

38mm에 담은 문워치의 미학
인류가 처음 달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 오메가의 스피드마스터가 함께했다. 1957년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로 탄생한 스피드마스터는 1965년 NASA의 유인 우주 비행 임무용 시계로 공식 인증을 받았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을 계기로 '문워치(Moonwatch)'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후 문워치는 오메가의 워치메이킹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다. 블랙 다이얼과 타기미터 베젤, 3개의 서브 다이얼이 만들어내는 특유의 균형감 역시 오랜 시간 브랜드를 대표하는 디자인 언어로 이어져왔다. 올해 오메가는 문워치의 미학적 유산을 스피드마스터 38 컬렉션에 새롭게 녹여냈다. 38mm라는 콤팩트한 케이스 사이즈와 모던하고 세련된 인상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이얼과 베젤 곳곳에 문워치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요소를 한층 적극적으로 담아낸 것. 컬러와 소재의 구성도 더욱 풍성해졌다. 블랙, 화이트, 실버 다이얼을 갖춘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을 비롯해 골드를 포함한 바이컬러,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더한 모델까지 총 7개의 새로운 레퍼런스를 선보인다. 클래식한 크로노그래프부터 화려한 주얼 워치까지 폭넓게 구성해 서로 다른 취향을 아우르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다이얼이다. 기존 스피드마스터 38의 특징이었던 타원형 서브 다이얼을 라운드 형태로 바꾸면서 크로노그래프 특유의 스포티한 인상을 더욱 뚜렷하게 살렸다. 다이얼 위 텍스트도 간결하게 정리해 전체적인 구성을 한결 깔끔하게 다듬었으며, 베젤에는 이전보다 두께감을 더했다. 케이스 사이즈 38mm의 균형 잡힌 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워치에서 익숙하게 보아온 디자인 요소를 보다 자연스럽게 녹여낸 셈이다. 새로운 스피드마스터 38은 소재와 장식에 따라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뉜다.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 3종, 골드를 포함한 바이컬러 2종,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적용한 2종으로 총 7개의 레퍼런스를 구성했다. 먼저 스테인리스 스틸 모델에서는 블랙, 화이트, 실버 세 가지 다이얼을 만날 수 있다. 블랙 버전은 블랙 알루미늄 베젤과 매트한 블랙 바니시 다이얼을 매치하고 화이트 수퍼-루미노바™를 채운 핸즈와 인덱스로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7개 모델 가운데 유일하게 날짜창을 없앴으며, 문워치의 시그니처 디자인과 가장 가까운 인상이다. 화이트 버전은 블루 세라믹 베젤과 래커 처리한 화이트 다이얼을 조합했다. 블루 CVD 코팅 핸즈와 인덱스에 날짜창 숫자까지 같은 색으로 맞춰 화이트와 블루의 선명한 배색을 강조했다. 실버 버전은 오판린 실버 PVD 다이얼에 따뜻한 그레이 컬러의 알루미늄 베젤을 더하고, 세드나™ 골드 PVD 핸즈와 바톤 인덱스로 부드러운 운기를 더했다. 바이컬러 라인업에서는 골드와 컬러 조합이 한층 풍성하게 드러난다. 먼저 실버 오판린 버전은 다이얼 위에 문사인™ 골드 PVD 핸즈와 바톤 인덱스를 배치하고,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는 18K 문사인™ 골드 베젤과 그린 알루미늄 베젤 링을 조합했다. 브레이슬릿의 작은 링크에도 문사인™ 골드를 사용해 다이얼에서 시작한 골드 톤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반면 아이보리 버전은 스피드마스터 38의 시그니처인 '카무치노'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 밝은 아이보리 메인 다이얼과 브라운 PVD 서브 다이얼의 대비에 18K 세드나™ 골드 베젤과 브라운 알루미늄 베젤 링을 더해 보다 따뜻하고 깊이 있는 색감을 완성했다. 마지막으로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을 적용한 두 모델이다. 다이얼은 각각 아이스 블루 PVD와 화이트 머더오브펠로 구성한다. 두 버전 모두 베젤에 총 1,53캐럿의 다이아몬드 52개를 세팅했으며, 로동 도금 핸즈와 바톤 형태의 인덱스에 화이트 수퍼-루미노바™를 적용해 화려한 장식 속에서도 가독성을 놓치지 않았다. 아이스 블루 다이얼은 시원하고 현대적인 분위기를, 빛에 따라 은은하게 표정이 달라지는 화이트 머더오브펠 다이얼은 우아한 매력을 강조한다. 무브먼트는 날짜 표시 기능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날짜창을 갖춘 6개의 시계에는 셀프 와인딩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330을 탑재했다. 반면 날짜창이 없는 블랙 다이얼 모델은 오메가 코-엑시얼 칼리버 3332로 구동한다. 두 무브먼트 모두 칼럼 휠 방식의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즘과 오메가의 코-엑시얼 이스케이프먼트를 갖췄으며, 시간당 2만8천8백 회 진동하고 약 5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크로노미터 인증을 통해 정확성까지 확보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슬릿에서도 세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타임피스에는 문워치 스타일의 5열 링크 브레이슬릿을 적용했으며, 중앙 링크는 각 디자인에 맞춰 풀라싱하거나 브러싱 처리했다. 같은 구조를 사용하면서도 마감 방식에 차이를 뒀 스테인리스 스틸, 바이컬러,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의 서로 다른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살렸다. 문워치의 미학적 유산을 바탕으로 다이얼과 베젤, 소재와 무브먼트, 브레이슬릿까지 세밀하게 다듬은 스피드마스터 38은 한층 다채로운 선택지를 제시하며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완성했다.



“정밀성의 별에서 시작해
고유의 디자인과 다채로운
컬러로 진화해온
컨스텔레이션 70여 년의
헤리티지 위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



다채로운 컬러로 빛어낸 컨스텔레이션

달을 향한 도전이 스피드마스터의 역사를 만들었다면, 오메가의 또 다른 아이콘 '컨스텔레이션'은 별에서 시작한다. 이름 그대로 별자리를 뜻하는 컨스텔레이션에는 오메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정밀성의 역사가 담겨 있다. 1952년 처음 선보인 컨스텔레이션은 당시 천문대 정밀도 경연에서 연이어 뛰어난 성과를 거둔 오메가의 기술력을 상징하는 컬렉션이었다. 이를 보여주듯 최초의 컨스텔레이션 워치 케이스백에는 제네바 천문대와 함께 8개의 별을 새겼다. 이는 1933년부터 1952년까지 오메가가 거둔 두 건의 크로노미터 기록과 정밀도 부문에서 여섯 차례의 1위를 상징한다. 특히 1933년과 1936년 큐-데당턴 천문대에서 세운 세계 기록은 컬렉션 탄생의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이렇게 정밀성의 역사를 담아낸 별은 이후 컨스텔레이션의 상징으로 이어졌다. 다이얼 6시 방향에 자리한 작은 별과 케이스백의 천문대 메달리온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컬렉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티프로 남아 있다.

정밀성에서 출발한 컨스텔레이션이 지금의 스타일로 자리 잡은 것은 1982년이다. 이때 등장한 '컨스텔레이션 맨해튼'은 슬림한 실루엣이 대세였던 쿼츠 시대에 맞춰 케이스를 얇게 다듬고, 브레이슬릿이 케이스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체형 구조를 적용했으며,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가로지르는 4개의 클러(claw)를 더했다. 지금은 장식적인 요소로 인식되지만, 원래 클러는 별도의 두꺼운 베젤 없이도 크리스탈을 케이스에 견고하게 고정해 얇은 두께와 방수 성능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였다. 이후 케이스 설계 방식이 달라지며 본래의 기능은 사라졌지만, 클러 자체는 컨스텔레이션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시그니처로 남았다. 케이스 상단과 하단을 부드럽게 감싸는 하프론 패시와 케이스에서 브레이슬릿으로 끊김 없이 이어

1 오메가의 새로운 앰배서더 신민아. 손목에는 질은 PVD 퍼플 다이얼 위로 나선형 수퍼노바 패턴이 펼쳐지고 다이아몬드 파베 베젤을 더한 컨스텔레이션 워치가 자리한다.
2 케이스 사이즈 25mm의 선 브러시드 실버라 화이트 다이얼에 18K 세드나™ 골드 핸즈와 인덱스를 더해 은은한 대비를 살린 컨스텔레이션 워치.
3 컨스텔레이션의 정밀성에 대한 역사를 상징하는 백케이스. 제네바 천문대와 이를 둘러싼 8개의 별을 메달리온 형태로 새겼다.
4 화이트 머더오브월 다이얼과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가 돋보이는 컨스텔레이션 워치. 케이스 양면을 감싸는 클러는 1982년 '컨스텔레이션 맨해튼'에서 시작된 컬렉션의 시그니처 디자인이다.
5 케이스 사이즈 29mm의 18K 문샤인™ 골드 컨스텔레이션 워치. 화이트 머더오브월 다이얼에 수퍼노바 패턴을 더하고, 베젤과 아워 마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주얼리 감각을 강조했다.

지는 라인 역시 이때 완성했으며, 오늘날까지 컨스텔레이션의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적인 디자인 요소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컨스텔레이션은 1982년에 선보인 '컨스텔레이션 맨해튼'을 통해 확립한 디자인 요소를 이어가면서도 케이스 사이즈, 소재, 다이얼 표현을 다양하게 확장하며 현대적인 변화를 더하고 있다. 여성 워치에서는 작은 케이스 사이즈와 슬림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스테인리스 스틸과 골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소재를 조합해 보다 섬세한 인상을 강조한다. 케이스백에도 컬렉션의 출발점인 정밀성의 역사를 상징하는 제네바 천문대와 8개의 별 메달리온을 새겨 70여 년의 헤리티지를 잇고 있다.

아름다운 호모니

2026년 7월 배우 신민아가 오메가의 새로운 앰배서더로 합류했다. 신민아는 캠페인 비주얼에서 두 가지 컨스텔레이션 워치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하며 각기 다른 매력을 보여줬다. 먼저 질은 보랏빛 다이얼이 인상적인 케이스 사이즈 28mm 워치는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베젤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PVD 퍼플 다이얼에는 6시 방향의 별 모티브를 중심으로 선이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는 수퍼노바 패턴을 새겨 임체적인 표정을 더했다. 별 모티브와 시침, 분침에는 18K 화이트 골드를 적용했으며,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 역시 각각 18K 화이트 골드 홀더에 세팅한 디테일을 완성했다. 질은 퍼플 컬러 위로 소용돌이치듯 펼쳐지는 패턴과 다이아몬드의 반짝임이 어우러지며 28mm의 작은 케이스 안에서 풍부한 존재감을 드러낸다. 함께 공개한 그린 다이얼 모델은 같은 28mm 사이즈지만 컬러와 소재의 조합으로 또 다른 분위기를 보여준다. 스테인리스 스틸과 오메가 고유의 18K 문샤인™ 골드를 조합한 투톤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다이아몬드 파베 베젤을 더했으며, PVD 그린 다이얼에도 6시 방향의 별 모티브에서 나선형으로 퍼져나가는 수퍼노바 패턴을 적용했다. 시침과 분침, 별 모티브는 물론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를 고정하는 홀더까지 18K 문샤인™ 골드로 통일해 질은 그린과 골드가 이루는 화려한 대비를 강조했다. 오랜 시간 이어온 디자인 헤리티지에 다채로운 컬러와 주얼리 디테일을 더한 두 타임피스는 오늘날 컨스텔레이션이 보여주는 변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문의 02-6905-3301 객원 에디터 이만정



1.34캐럿 D 컬러 IF 등급
트로이디아 컷 다이아몬드와
총 1천5백47캐럿의 모거나이트,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네크리스, 0.72캐럿 D 컬러
VVS2 등급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총 1백74캐럿의 모거나이트,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및 사파이어
글라스를 더한 링 모두 부쉐론.

Human Being

오직 인간이 지닌 독창적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부쉐론의

2026 가르프 블랑슈 컬렉션.

PHOTOGRAPHED BY PAKB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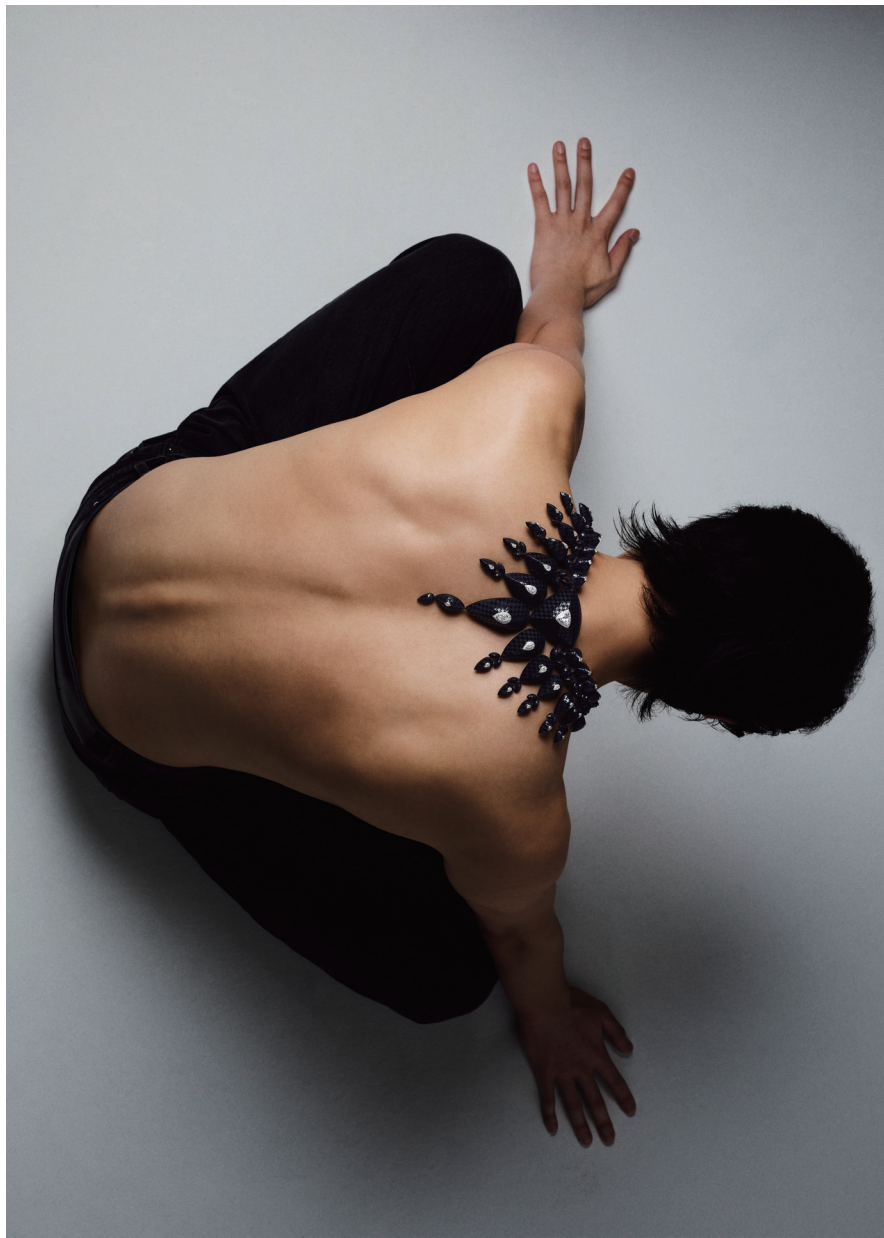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2.63캐럿 트로이디아 컷 다이아몬드와 총 1천5백35캐럿의 옉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을 더한 네크리스, 0.71캐럿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총 1백33캐럿의 옉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및 티타늄으로
장식한 링, 록 크리스털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사파이어 글라스로 구성된 화이트 골드 링, 록 크리스털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이 입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모거나이트,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및 사파이어 글라스로 완성한 링, 피부 위에 새겨진 타투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은 화이트 골드 네크리스, 투명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록 크리스털을 더한
화이트 골드 링, 활짝 핀 꽃봉오리를 연상케 하는 모거나이트와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완성한 링, 제작에 총 1천9백90시간을 들여 완성한 섬세한 하운드 투스 패턴의 링 모두 부쉐론.



(위) 1.74캐럿 D 컬러 VVS1 등급 트로이다이아 컷 다이아몬드와 총 59개80캐럿의 스모키 쿼츠,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으로 이루어진 화이트 골드 비크리스 1.51캐럿 패어 컷 다이아몬드와 총 83캐럿의 스모키 쿼츠,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및 사파이어 글라스를 더한 화이트 골드 링 모두 **부세론**.
(아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플레어 주원이 애정하는 소제, 록 크리스탈에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사파이어 글라스를 가미한 화이트 골드 링 **부세론**.

파부 워트 비치럼 쏟아져 내리는 듯한 환영을 자아내는 록 크리스탈과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의 화이트 골드 비크리스 **부세론**.





(왼쪽부터) 오톨스 표면에 정교한 인그레이빙으로 촉각적 질감까지 완벽히 구현한 하운드 투스 패턴의 링, 트로이디아 컷 다이아몬드와 하운드 투스 패턴을 새긴 오톨스,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이 쿠티르적 조화를 이룬 네크리스 모두 **부쉐론**.

헤어 이블루주 메이크업 윤채수 도발 루루, 박진영 객단 에디터 임나진

빅토리이 시대 티투의 미학에서 영감을 받아 앙귀버, 장미, 각종 곤충 등 다채로운 모티프를 대담으로 배치한 네크리스와 링 모두 **부쉐론**. 문의 080-822-0250

Better with Time

가죽은 표면의 결과 광택, 패턴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인상을 자아낸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목의 형태에 맞게 길들고, 색과 질감에는 자연스러운
에이징이 더해져 고유한 멋을 완성하는 레더 스트랩 위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넬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PAM01371 크라운 보호 장치를 갖춘 40mm 브러시드 스틸 케이스에 화이트 다이얼과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P.900 오토매틱 칼리버를 장착해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1천2백만원대.
문의 02-2118-6256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41mm 세드나 골드 케이스에 크리스탈 마강의 동형 실바 다이얼, 6시 방향의 날짜창, 9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 서브 다이얼을 더하고, 버건디 엘리게이터 스트랩으로 마무리했다. 2천5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스 트리뷰트 듀오페이스 스몰 세컨즈 42.9×25.5mm의 듀오 페이스를 적용한 이 타임피스 는 1931년에 선보인 리베르스의 아르데코 코드에서 영감을받았다. 앞면의 화이트 오팔린 다이얼에는 슈랑 드 페르 미닛 트랙, 사다리꼴 아틀라케 인덱스, 도핀 핸즈, 6시 방향의 스물 세컨즈를 배치했으며, 뒷면에는 선레이 블루 다이얼과 6시 방향의 나잇 & 데이 인디케이터를 장착했다.
블랙 송아지가죽 스트랩을 기본으로 가죽과 그레이 캔버스를 조합한 스트랩도 함께 제공한다. 2천3백10만원. 문의 02-3449-6912
소파드 LUC XPS 지름 40mm, 두께 72mm의 루센트 스틸™ 케이스와 래커 마감 화이트 다이얼에 블랙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매치해 절제된 우아함을 드러낸다. 셀프 와인딩 96.50-L 무브먼트를 탑재해 약 58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2118-6085
피아제 식스티 워치 아이코닉한 트라페즈 형태의 로즈 골드 케이스와 새틴 브러시 마강의 실버 솔라 다이얼, 네이비 블루 엘리게이터 스트랩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피아제 57P 쿼츠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2천5백만원대. 문의 1877-4275
블랑팡 빌레레 울트라슬림 38mm 스틸 케이스에 오팔린 다이얼과 베이지 엘리게이터 스트랩을 갖췄다. 3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자리하며, 약 1백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칼리버 1150을 장착했다. 1천5백만원대. 문의 02-3479-1833 에디터 김하얀

이시스트 김지현

Another Round

남자의 손목 위로 드러나는 은은한 존재감.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프레드 프레드 × 롤랑가로스 하프 파베 라지 브레이슬릿 세계 4대 메이저 테니스 대회 중 하나인 롤랑가로스에서 영감을받은 컬렉션의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에 블루 사파이어를 하프 파베 세팅한 라지 버클에 블루 데라코다 케이틀을 매치해 시원한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02-514-3721
피아제 포제션 브레이슬릿 메종만의 독특한 금세공 디테일인 데코 팰리스(Décor Palace) 기법으로 완성한 18K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문의 1877-4275
소파드 아이스 큐브 뱅글 완벽한 기하학적 정육면체가 선사하는 미니멀한 우아함이 돋보이는 브레이슬릿으로, 18K 에터칼 로즈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1천13만원. 문의 02-2118-6085
다미아니 벨 에프크 린 브레이슬릿 양옆 다이아몬드 사이, 화이트 골드로 이뤄진 사각형과 원형 모티브가 화전하는 아이코닉한 컬렉션. 기존 화이트 다이아몬드 대신 블랙 다이아몬드를 매치해 중성적 매력을 선사하는 18K 화이트 골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02-6204-1924
반클리프 아펠 조디악 레오 브레이슬릿 메종만의 서정성을 담은 별자리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옐로 골드 소재 메달에 사자자리를 새겼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티파니앤코 티파니 T1 와이드 힌지드 뱅글 사랑의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한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아이코닉한 모티브, 약속과 가능성의 도시 뉴욕의 정신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 로즈 골드 소재 T 모티브를 더한 미디엄 사이즈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그래프 로렌스 그래프 시그니처 컬렉션 파셋 플레인 화이트 골드 뱅글 패시 디테일의 화이트 골드 소재로만 완성해 모던하고 심플하며, 기하학적인 느낌으로 남성미를 자아내는 브레이슬릿 1천5백19만원. 문의 02-2150-2320
에디터 성경민

이시스트 김지현

Get

The

List

이번 가을, 그의 취향이 향하는 곳.
PHOTOGRAPHED BY JEONGSEOKHEON

BOUCHERON

(왼쪽부터) 방돔 광장의 자갈길을
연상시키는 클루 드 파리 라인이
특징인 아이코닉한 콰트로
컬렉션 뱅글로, 18K 옐로 및
핑크 골드, 브라운 PVD 소재의
콰트로 클래식 스몰 투 코드 뱅글
1천2백90만원, 쿼터르적 감성의
옐로 골드 그로그랭과 다이아몬드,
브라운 PVD 소재의 클루 드
파리 모티브와 핑크 골드 더블
고드룬으로 완성한 콰트로 클래식
스터드 이어링 1천3백80만원
모두 부세론, 문의 080-822-0250

RALPH LAUREN PURPLE LABEL

부드러운 최고급 송아지가죽
소재의 이탈리아산 하이엔드
남성용 로퍼로, 정교한 금속
장식이 우아한 포인트를 주는
패린 로퍼 가격 미정
랄프 로렌 퍼플 라벨,
문의 02-3438-6235

TIFFANY & CO.

특유의 볼드함으로 고유의
스타일을 완성하고 시선을 사로잡는
18K 옐로 골드 소재의 티파니
하드웨어 그레듀에이티드 링크
네크리스 가격 미정 티파니옐코,
문의 02-1670-1837

GRAFF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모던한 실루엣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다이아몬드 링 7백29만원, 옐로 골드
세 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더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트라플
파베 다이아몬드 이어커프 6백23만원,
옐로 골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싱글
이어커프 1백70만원, 옐로 골드 한 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렌스 그라프 시그니처
파베 다이아몬드 싱글 이어커프 2백27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OMEGA

상징적인 4개의 클러, 케이스와
크라운의 반달 모양 디자인,
로마숫자와 싱글 골드 스타를 적용한
브랜드 대표 워치 컬렉션으로,
지름 41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폴리싱 처리한 블루
세라믹 베젤을 매치하고 화이트
세라믹 다이얼로 모던한 감성을
자아내는 칸스텔레이션 1천2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DAMIANI

(왼쪽부터 차례대로) 기하학적
모티브의 회전하는 옐로 골드
밴드로 완성한 벨 에포크 링 링,
옐로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양옆에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벨 에포크 링 링,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활용도가
높은 옐로 골드 소재의 벨 에포크
링 네크리스 모두 가격 미정
다미아니, 문의 02-515-1924

TOD'S

부드러운 스웨이드 소재에
앞부분의 은은한 셔링
디테일로 클래식하면서도
빈티지한 무드를 불어넣은
남성 로퍼 96만원 토즈,
문의 02-3438-6008

CHANEL WATCHES

(왼쪽부터) 지름 38mm의
견고한 블랙 세라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옐로 골드
라인과 인덱스, 크라운으로
포인트를 준 J12 워치 칼리버
12.1, 지름 28mm 화이트
세라믹 케이스를 스틸로 장식한
J12 워치 모두 가격 미정
샤넬 워치, 문의 089-805-9628
에디터 성정민

Take

새로운 시즌,
새로운 스타일로의 여정 출발.
2026 F/W 남성복 뉴욕.
PHOTOGRAPHED BY JUNG JIEUN

off

코트 새틴 파카 4백5만원, 애플레틱 코트 자지 하이넥 1백25만원, 코트 데님 보이프렌드 진 2백25만원 모두 셀링스, 블랙 로퍼 85만원 토조.

엠보스드 패이턴트 레더 재킷, 플렉시 셔츠, 더블리타드 팬츠, LV 에센셜 타이, LV 드롭 300 스니커즈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미국산, 캐빈, 램, 파자, 코트, 표출된, 셔츠, 코트, 셔츠, 팬츠, 레디, 100% 수, 모든, 가, 전, 미, 영, 에, 레스



미국산, 캐빈, 램, 파자, 코트, 표출된, 셔츠, 코트, 셔츠, 팬츠, 레디, 100% 수, 모든, 가, 전, 미, 영, 에, 레스



체크 자지 굽입 셔츠 1백69천원, 베이슬리 코트 반츠에 셔츠 1백28천원, 니트 롱, 코트 맨즈, 페이드 부츠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페이드 캐시미어 플린트 스웨터, 캐시미어 울 스웨터, 터틀넥 플린트 맨즈, 브라운 코트 모두 가격 미정, 몽클레르 컬렉션.



실카인 개단 재킷 4백81만원, 울 재킷 5백55만원, 니트 롱 기어 미장 코트 1백20만원, 블랙 롱패 95만원 모두 토즈.

헤어 마중호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Diego Rivilla(Jenniler Model) 스타일리스트 채형석
복이 비틀 02-3432-1854 에트레스 02-542-6822 셀링스 1577-8841 토즈 02-3438-6008 몽블레트 컬렉션 0030-8321-0794 랍프 로렌 파를 라벨 02-3438-6235 로에베 02-3479-1785 프리다 02-3442-1831



에펠드 그린 레더 코트 1백95만원, 미장 코트 셔츠 9백20만원, 울 재킷 1백20만원, 블랙 롱패 95만원 모두 토즈.

The New Luxury

‘무엇을 소유했는가’보다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 건강과 휴식, 미식과 문화 그리고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까지.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 새로운 럭셔리리의 기준이 되고 있다. 강원도 정선에서 시작한 웰니스 철학이 서울의 일상으로 확장된다. ‘파크로쉬 서울원’이 제안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



탁월한 입지를 넘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 방식

럭셔리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더 크고 희소한 것,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부와 취향을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바쁜 일상에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며 몸을 잘 돌보는 등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것까지가 진정한 럭셔리한 삶이라 칭한다.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 중 주거 영역에서 역시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 기존 하이엔드 주거의 가치가 입지와 면적, 희소성, 고급 마감재 등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치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그곳에서 어떤 삶을 경험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선택의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엔드 주거 역시 단순히 머무는 공간을 넘어 거주자의 일상과 취향을 지원하는 하나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세 빌스에 따르면 전 세계 브랜드 레지던스는 2024년 말 7백64개 프로젝트에서 2025년 말 9백10개로 19%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프로젝트 수는 최근 5년간 55% 증가했으며, 호텔 브랜드 뿐 아니라 디자인과 패션, 미식, 자동차, 웰니스처럼 뚜렷한 세계관을 지닌 브랜드들이 주거 영역으로 들어오

고 있다. 글로벌 브랜드 레지던스의 평균 프리미엄은 일반 고급 주택보다 33% 높았고, 리조트 입지에서는 39%, 기존 도시와 신촌 도시에서는 각각 평균 30% 수준을 기록했다. 이제 구매자는 로고를 사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서비스와 운영 품질, 그리고 그 브랜드가 제안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웰니스 부동산의 확장은 더욱 가파르다.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는 세계 웰니스 부동산 시장이 2025년 8천 7백6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2030년에는 1조8천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단지 안에 피트니스 센터나 스파를 두는 초기 단계에서 벗어나 수면과 영양, 예방의학, 정신적 안정, 자연과의 교감, 이웃과의 관계까지 아우르는 다차원적 웰니스가 핵심으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슈퍼 럭셔리의 방어력은 비싼 자체나 희소한 조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건강과 시간, 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실질적인 효용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비용에 대한 가치가 만들어진다.

입지와 라이프스타일을 모두 갖춘 하이엔드 웰니스 주거 등장

웰니스 주거 형태의 부동산 시장에 먼저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세계적인 호텔 브랜드다. 글로벌 하이엔드 레지던스는 호텔에서 누리던 컨시어지와 다이닝, 웰니

“정선에서 시작된 웰니스 철학을 서울의 생활권으로 옮긴 파크로쉬 서울원이 제안하는 것은 결국 한 체의 주택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운영 방식이다”

스 등의 서비스를 일상의 영역으로 가져오며 사는 곳 이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점이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호텔 브랜드들은 이러한 하이엔드 주거 형태로 확장하기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강원도 정선에 국내에서 독보적인 ‘웰니스’ 콘셉트의 호텔을 론칭해 운영하는 파크로쉬에서 차원이 다른 주거 공간인 ‘파크로쉬 서울원’을 선보인다. 단지가 조성되는 ‘서울원’은 서울 노원구의 약 15만㎡ 부지에 주거와 호텔, 쇼핑몰, 오피스 등이 들어서는 미래형 융합 타운으로 서울 강북권 최대 규모 복합개발사업이다. 반경 1km 안에서 삶의 모든 요소가 온전히 채워지고, 일과 주거, 문화, 휴식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도시 구조를 통해 진정한 ‘웰니스 라이프’를 구현할 계획이다. 그 안에 들어서는 ‘파크로쉬 서울원’은 강원도 정선의 ‘파크로쉬 리조트앤웰니스’에서 구축해온 웰니스 철학을 일상으로 가져온다. 덕분에 특별한 한 떠나야만 만날 수 있었던 웰니스 경험을 서울 한가운데에서 매일 누리는 삶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공간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적인 건축 그룹 유엔스튜디오(UN Studio)와 조정 설계 그룹 타운스케이프가 참여했다. 더불어 파크 하트드 서울, 파크 하트드 부산 등에 참여한 글로벌 인테리어 컨설턴트



S.D.S 인터내셔널이 새로운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인테리어를 선보일 예정이다.

정선에서 서울로 확장된 웰니스 철학

‘파크로쉬 서울원’의 웰니스 라이프는 일상 곳곳에서 구체화된다. 아침의 시작부터 다르다. 고메드갤러리아의 식사 서비스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를 보다 편안하게 즐길 수 있고, 파크하트드 서울과 안다즈 강남 등 5성급 호텔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호텔식 컨시어지 서비스는 일상의 크고 작은 번거로움을 덜어준다. 또 건강을 위해 굳이 멀리 찾아가 할 필요가 없다. ‘서울원’ 내에는 프리미엄 피트니스 멤버십 ‘조이스바이반트’가 들어서 운동과 건강관리 시설을 일상 가까이에 누릴 수 있다. 또 단지 내에 서울아산병원 건강검진센터가 조성될 예정. 입주주민들은 이곳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약된 서울아산병원과 노원 을지대학병원을 통한 진료 연계 및 응급 상황 대응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웰니스 요가존과 피트니스, 스포츠 라운지, 호텔식 사우나를 비롯해 카페테리아, 프라이빗 다이닝룸, 오픈 라이브러리 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더해진다. 집이라는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는 시간뿐 아니라 책을 읽고, 식사를 즐기고,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즉 ‘파크로쉬 서울원’은 식사와 운동, 휴식과 건강관리, 여가와 교류를 하나의 일상 안에 연결하는 것이다. 여러 프리미엄 서비스를 단순히 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다 건강하고 여유로운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주거 경험 전반을 구성했다.

좋은 하루가 좋은 삶이 되는 곳

‘파크로쉬 서울원’의 라이프스타일은 현관문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 주거와 상업, 업무, 호텔,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어우러지는 강북권 최대 규모의 복합개발 프로젝트인 ‘서울원’ 내 위치한 덕분에 하루의 대부분을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채울 수 있다. 그 자체만으로 도시에서 누리는 또 하나의 럭셔리인 셈이다. 이로써 이들에 소비하던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필요한 것을 가까이 곳에서 누리며, 일과 휴식의 경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민간 임대 방식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도 기존 하이엔드 주거와 다른 선택지를 제시한다. 집을 반드시 소유해야만 수준 높은 주거 경험을 누릴 수 있다는 익숙한 공식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은 소유보다 향유라는 오늘날의 럭셔리 트렌드와도 맞닿아 있다. 또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와 달리 연령에 따른 입주 자

1 ‘파크로쉬 서울원’은 정선 파크로쉬의 웰니스 철학을 서울로 그대로 가져온 새로운 주거 모델이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조감도.
3 ‘파크로쉬 서울원’ 내 조성될 건강관리실.
4 가든을 바라보며 여유로운 다이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
5 럭셔리 호텔 감성을 느낄 수 있는 ‘파크로쉬 서울원’의 드레스룸존.

격 제한이 없다는 점도 눈에 띈다.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가 일정 연령 이상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파크로쉬 서울원’은 나이에 관계없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주거 공간으로 기획됐다. 과거의 슈퍼 럭셔리가 도시 위로 높이 솟은 펜트하우스와 희소한 조망으로 자신을 증명했다면, 오늘의 럭셔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섬세하게 작동한다. 잘 자고, 잘 먹고, 몸을 돌보며,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불필요한 일에 쓰던 시간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삶. 정선에서 시작된 웰니스 철학을 서울의 생활권으로 옮긴 파크로쉬 서울원이 제안하는 것은 결국 한 체의 주택을 넘어선 ‘새로운 삶의 운영 방식’이다. ‘파크로쉬 서울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2개 동, 전용면적 70~80㎡, 총 7백68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민간 임대 방식으로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만큼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소유에 따른 세 부담이 없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통해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했다. 특히 2026년 계약자에게는 10년간 보증금을 동결한다. 갤러리는 서울시 노원구 마들로1길 45 일원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문의 02-568-3032 에디터 정정민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Capella Shanghai, Jian Ye Li)

스쿠먼, 사적인 럭셔리가 되다

팬데믹을 전후해 한동안 찾지 못했던 상하이를 오랜만에 다시 만났다. 거칠 것 없이 성장 가도를 달리던 도시의 위용과 속도에 놀려 이 메가시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시절에도 단번에 마음을 빼앗겼던 프렌치 컨세션(French Concession). 플라타너스 사이로 우아하거나 늠름한 고택이 이어지는 그곳으로 향하는 길에, 다른 이유로 조금 설렜다. 고백을 개조한 럭셔리 호텔은 많지만,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아온 공동 주거 양식인 스쿠먼(石庫門)을 호텔로 삼았다. 올해 <포브스트래블 가이드> 5성에 이름을 올린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Capella Shanghai, Jian Ye Li)의 독특한 발상이 호기심을 당겼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아담한 빌라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양장맞은 응접실이 먼저 반긴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인 공간을 지나 총총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면, 오롯하게 다라를 즐기거나 잠시 쉬어 가기 좋은 라운지가 나온다. 한 층 더 오르면 침실이다. 창밖으로 상하이 특유의 골목길인 룽탕(弄堂)이 내려다보이고, 그 너머로 또 다른 스쿠먼 건물들이 이어진다. 다시 반 층쯤 올라서면 세련되고 안락한 욕실이 자리한다. 그리고 맨 위 루프톱에서는 붉은 지붕이 겹겹이 이어지는 지안예리의 풍경을 한눈에 만날 수 있다. 호텔 객실이라기보다 한 채의 집을 충충이 탐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잠시 머무는 투숙객이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이 어느새 이 오래된 단지의 입주민이라도 된 듯하다. 아래층에서 손님을 맞고, 반 층 올라 차를 마시고,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창밖 풍경을 바라보

는 생활의 동선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과거 상하이 사람들이 살던 집 구조가 오늘날에는 사적인 럭셔리로 변모한 것이다.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가 자리한 곳은 1930년대에 조성된 스쿠먼 주거 단지다. 상하이의 대표적인 주거 문화유산인 스쿠먼은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지안예리가 다른 점은 스쿠먼의 '골목'뿐 아니라 '집' 자체에 새로운 쓰임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원래 스쿠먼은 집 한 채만 때어놓고 볼 수 있는 건축 양식이 아니다. 길가의 상업 공간에서 안쪽 룽탕을 따라 여러 채의 집이 이어지며, 거리와 골목, 상업과 주거가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리룽(里弄)이라는 주거 공동체를 이룬다.

골목이 품은 하나의 세계

지안예리도 그 구조를 흥미롭게 이어받았다. 길가에는 세계적인 프렌치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의 중국 본토 첫 레스토랑인 르 콩투아 드 피에르 가니에르가 있고, 그 옆에는 동네 빵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빵과 패이스트리를 선보이는 라 볼랑제리, 취향이 남다른 편점숍 EMMÉ 등이 자리한다. 호텔에 딸린 부대시설이라기보다 오래된 동네에 원래부터 있던 가게처럼 자연스럽게 들어앉은 모습이다. 지안예리의 입구를 지나면 리셉션이 있는 호텔의 중심 공간이 나오고, 다시 조금 걸어서 커다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비로소 주거 공간이 시작된다. 이러한 스쿠

1 중국 상하이 쉬위이구에 자리한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 입구. 세계적인 프렌치 셰프 피에르 가니에르의 중국 본토 첫 번째 레스토랑인 르 콩투아 드 피에르 가니에르가 자리한다. 2 단지 내 정원. 3 카펠라 상하이 지안예리는 상하이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스쿠먼 건축 단지 중 하나에 있다. 1930년대 처음 조성된 단지로 자아 이브라힘과 그의 팀이 디자인해 2017년 호텔로 문을 열었다. 총 55채. 4 돌로 된 문틀에 나무 문짝이 달린 전형적인 스쿠먼 스타일의 빌라 입구. 5 2층에 자리한 스쿠먼 디럭스 빌라의 침실. 반층짜리 층이 반복되는 스퀘릿 레벨 구조다. 6 단지 내 40채의 레지던스 가운데 한 채를 소용으로 쓰는 패션 디자이너 에드 하디의 공간 내부. Photo by 고성연 ※1-5 이미지 제공_Capella 주소_480 West Jianguo Road, Xuhui District, Shanghai 200031

먼 단지에서 룽탕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었다. 길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목을 중심으로 여러 집이 이어지고, 각각의 집은 다시 문을 통해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지안예리에서는 그 오래된 공간의 위계가 호텔의 동선 속에서 묘하게 되살아난다. 바깥 거리에서 상업 공간을 지나 호텔 중심부에 닿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골목을 따라 주황빛 능소화를 담장에 드리운 붉은 빌라들이 겹겹이 이어진다. 빛바랜 석재 문틀이 검은 대문을 우아하게 감싸고 있다. 대문을 열고 작은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들어서면, 그제야 앞서 보았던 집의 안쪽 풍경이 시작된다. 지안예리에는 장기 체류를 위한 레지던스도 있다. 이 가운데 일부를 스파나 소용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그중 하나가 미국 패션 디자이너 에드 하디(Ed Hardy)의 공간이다. 록 스타 감성이 흐르는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의상, 타투 공간 등이 오래된 스쿠먼 안에서 뜻밖의 장면을 만든다. 호텔 고객이 예약하면 원하는 스파를 골라 카펠라 에코 백에 프레스로 찍어 나만의 백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주거지이던 골목이 작은 도시처럼 다시 살아났다. 그 풍경은 지안예리의 담장 밖으로도 이어진다. 문을 나서 가까운 동네를 거닐다 보면 오래된 주택과 빌라 사이로 신선한 감각의 공간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다. 현지인들이 찾는 작은 면집에서 5위안짜리 국수 한 그릇과 간단한 요리로 허기를 달래고, 운이 좋아야 대기 번호표를 손에 쥌 수 있다는 O.P.S에서 커피와 칵테일의 색다른 조합을 맛본다. 우강루와 안푸루 쪽으로 발길을 옮기면 풍경은 또다시 달라진다. 플라타너스가 머리 위로 늘씬하게 가지를 뻗은 길을 따라 오래된 서양식 주택과 근대건축물이 이어지고, 그 사이 사이로 카페와 술이 들어서 있다. 어느새 상하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렌치 컨세션의 거리 풍경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호텔의 '카펠라 큐레이츠(Capella Curates)' 프로그램을 이용해 전문 가이드와 함께 이 일대의 건축과 문화, 동네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볼 수도 있다.

한 채의 집에서 시작했지만, 그 안에서 만난 것은 결국 한 도시의 모습이었다.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 생활과 취향이 한 동네에서 자연스럽게 포개지는 상하이. 이 도시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 단서를 나는 어쩌면 작은 스쿠먼 단지에서 발견했는지도 모르겠다. 글 고성연(상하이 현지 취재)



Frame by Frame

같은 순간도 어떤 카메라로 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장면이 된다. 성능뿐 아니라 촬영하는 방식과 취향이 카메라를 선택하는 새로운 기준이 된 지금, 각기 다른 기능과 쓰임으로 저마다의 시선을 완성해줄 카메라 리스트.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35mm 필름 한 프레임에 절반으로 나누는 하프 사이즈 포맷으로 한 프레임에 2배 많은 사진을 담을 수 있다. 25mm F3.5 단렌즈와 수동 필름 와인딩 레버를 갖춰 아날로그 촬영이 가능한 펜탁스 17(PENTAX 17) 91만9천원대 **펜탁스**. 문의 02-3668-3114. 알루미늄 블록을 정교하게 가공한 유니보디에 최소화된 컨트롤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약 24.6MP 풀프레임 센서를 갖춰 피사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그마 BF 3백49만원 **시그마**. 문의 02-3668-3114. 전용 영상 코덱 R3D NE로 영화 같은 화면을 구현하고, 32비트 플로팅 녹음과 약 630g의 경량 보드로 전문적인 영상 제작과 높은 기동성을 지원하는 시네마 카메라 ZR 가격 미정 **니콘**. 문의 080-800-6600. 여섯 가지 아날로그 컬러 효과와 5단계 밝기 조절 기능을 갖추고, 비네트와 이중노출 등 다양한 모드와 클래식한 매트 디자인을 더한 인스탁스 미니99 실버 29만9천원 **인스탁스**. 문의 02-3281-7700. 50MP 1인치 CMOS 센서로 정교한 화질을 구현하고, 최대 8K60과 8K 오픈 게이트, 최대 32배 슬로모션을 지원해 역동적인 움직임을 생생하게 포착하는 미션1프로 그래픽디션 1백29만9천원 **고프로**. 문의 1600-4758. 빛을 부드럽게 확산하는 HDF(Highlight Diffusion Filter)와 스냅에 특화된 SN 모드를 통해 은은한 빛의 질감과 또렷한 묘사를 동시에 담아내는 GR IV HDF 2백39만원 **리코**. 문의 02-3668-3114. 6천만 화소 풀프레임 BSI CMOS 센서와 주미룩스 28mm 1/1.7 ASPH 렌즈를 장착하고, Leica FOTOS 앱과 연동해 사진과 동영상을 간편하게 전송할 수 있는 라이카 Q3 메탈 그레이 1천1백99만원 **라이카**. 문의 1661-0405 에디터 **신정임**



상테카이 라이언 립 베일 캔들라브라 사자의 대담하고 강인한 정신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부드러운 발림성과 은은한 블랙베리 컬러로 입술에 포인트를 준다. 2.5g 9만3천원대. 문의 070-4370-7511
_by 에디터 신정임

라곰 아쿠아 씨젤프 캡슐 세럼 피부 재생을 돕는 PDRN 성분을 셀리스(shell-less) 캡슐에 담아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녹아들며, 속부터 맑게 차오르는 듯한 광채를 선사한다. 30ml 2만9천원. 문의 1577-5729
_by 에디터 신정임

알비온 스킨 컨디셔너 에센셜 N 홉카이도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고품질 울무를 염색해 담았다. 피뽏결과 톤부터 유수분 밸런스, 트러블 관리, 민감 피부 진정, 피부 장벽 케어까지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만능 에센스 로션. 330ml 10만8천원대. 문의 02-6905-8936
_by 에디터 김하얀



로에베 퍼퓸 토마토 리프 바디 스크럽 너무 거칠지 않은 셀룰로스와 살구씨 입자로 부드럽고 상쾌한 각질 제거를 돕고, 신선한 토마토 향이 샤워 후 생기와 활력을 선사한다. 200ml 12만4천원. 문의 02-2088-8587
_by 에디터 성정민

클라랑스 더블세럼 아이 다크서클과 눈가 주름을 한 번에 케어하는 눈가 전용 세럼으로 가볍고 묽은 제형이 눈가에 촉촉하게 스며들어 메이크업 전에 사용해도 밀림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된다. 20ml 13만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김하얀

라 보떼 루이 비통 LV 크레용 290 로즈 위스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데임 팻 맥그라스의 노하우와 터치를 느낄 수 있는 립 라이너. 이름과 같이 부드러운 텍스처와 컬러감이 크레용 같아서 누구나 손쉽게 완벽한 립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g 8만5천원. 문의 02-3432-1854
_by 에디터 성정민

Editor's Pick

가을 무드를 더하는 메이크업과 프레이그런스부터 피부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스킨케어까지. 이달의 뷰티 리스트.
PHOTOGRAPHED BY **KIMYOUTAE**

에르메스 뷰티 에르메샬스 진생 빌로바 오드 퍼퓸 인삼 뿌리와 은행잎에서 영감을 받은 우디 향을 담아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주요 노트를 떠올리게 하는 옐로 보를 패키지가 사선을 사로잡는다. 100ml 46만5천원. 문의 02-310-5174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라부르케 324 글로우 모이스처라이징 젤 게질이 바뀌며 피부가 부쩍 건조해졌는데, 자연 유래 브라이트닝 성분을 담아 촉촉하게 수분을 채우고 피부에 생기를 부여한다. 50ml 9만4천원대. 문의 1644-4490
_by 에디터 신정임



크리스찬 디올 뷰티 디올쇼 5 폴립르-디올 네임클러버 컬렉션 #883 렉키 로즈우드 행운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네 잎 클로버 패턴을 담은 아이 팔레트. 다가오는 가을에 어울리는 따뜻한 로즈우드 컬러를 활용해 깊이감 있으면서도 우아한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6g 12만4천원대. 문의 080-342-9500
_by 인턴 에디터 김지현

MOISTURE BOOST



1 랄프 로렌 컬렉션 페리 램 스웨이드 재킷 클래식한 캠퍼스 룩에서 영감을 받은 랄프 로렌 컬렉션의 '페리 램 스웨이드 재킷'. 브랜드 고유의 스포츠웨어 전통과 절제된 우아함을 조화롭게 담아낸 아이템으로,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양가죽 스웨이드 소재와 스포티한 실루엣이 특징이다. 전면 지퍼 여림과 버튼 칼라, 허리 포켓으로 실용성을 배가했다. 문의 02-3467-6560

2 태그호이어 포물러 1 솔라그래프 38mm 태그호이어는 잔드보르트 셔츠의 마지막 레이스를 기념해 '포물러 1 솔라그래프 38mm' 리미티드 에디션 2종을 공개했다. 지름 38mm의 스틸 케이스에 잔드보르트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담은 오렌지 컬러로 강렬한 인상을 완성했다. 무브먼트는 태양광과 인공조명을 모두 동력으로 사용하는 솔라그래프를 적용했으며, 직사광선에 1분만 노출해도 하루 동안 구동할 수 있다. 문의 02-3479-6021

3 미우미우 버블 슈즈 미우미우가 브랜드 초기의 미니멀한 철학과 2000년대 초 스포츠웨어 감성의 아카이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신제품 '버블 슈즈'를 선보인다. 볼륨감 있는 버블 솔이 특징이며,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 반짝이는 크리스탈 자수까지 더해 스포티한 무드와 브랜드 특유의 로맨틱한 감성을 담았다. 문의 02-541-7443

4 에르메스 스웨이드 짐 스킨 소재의 노리아 샌들 에르메스가 메시와 가죽 소재를 섬세하게 조합해 가볍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담은 '노리아 샌들'을 선보였다. 가느다란 가죽 스트랩이 발을 부드럽게 감싸 세련된 실루엣을 연출하며, 일부 모델에는 메종의 상징인 쉐인 당크르(chaine d'ancre) 모티브를 가미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강조했다. 문의 02-542-6622



5 예거 르쿨트르 랑데부 아워-미닛 예거 르쿨트르가 대표적인 여성 컬렉션인 랑데부 라인의 새로운 아이템을 출시했다. 현대적인 여성미를 반영한 '랑데부 아워-미닛'은 7.47mm의 슬림한 두께가 특징으로, 미니멀한 다이얼에 섬세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기호적 패턴을 입혔다. 스틸과 18K 핑크 골드 케이스로 선보이며, 각각 메탈 브레이슬릿과 엘라게이터 가죽 스트랩을 매치했다. 문의 1877-4201

6 끌로에 클로버 숄더백 코튼 캔버스 소재에 카프 스킨과 골드 톤 메탈 장식으로 가을 무드를 완성한 끌로에 클로버 숄더백. 앞면은 오버사이즈 로고로 장식해 메종 특유의 아이코닉한 감성을 강조했으며, 탈착 가능한 체인과 가죽 스트랩을 활용해 토트 백과 버킷 백, 2가지 실루엣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1533-7069

7 불가리 디바스 드림 불가리가 로마의 건축미와 예술에서 영감을 받은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새로

운 아이템을 공개했다. 로마 시대 모자이크 패턴과 해 질 무렵 대리석 위로 반짝이는 빛을 머더오브펠의 은은한 광채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정교하게 연결된 부채꼴의 '칼라(calla)' 모티브가 입체적인 실루엣과 유려하게 흐르는 듯한 움직임을 연출하며 우아한 분위기를 부여한다. 문의 02-6105-2120

8 시몬스 F/W 하이엔드 신제품 프레임 B1 시몬스의 새로운 프레임 'B1'은 건축적 비례감과 입체적 디자인이 돋보이는 프레임으로, 높이 1m 60cm에 이르는 헤드보드가 침실에 깊이 있는 분위기를 더한다. 컬러는 천연 혼종목 특유의 깊고 고급스러운 나뭇결을 살린 '스모크오크'와 우을 함유한 패브릭의 부드러운 질감이 특징인 '그레이' 2종으로 출시했다. 문의 1899-8182

9 록시땅 이모르텔 디바인 타겟티드 립를 케어 록시땅이 이마, 눈가, 팔자 등 주름 고민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이모르텔 디바인 타겟티드 립를 케어'를 출시했다. 이모르텔 슈퍼 추출물, 핵사펩타이드-8, 히알루론산 등 천연 유래 지수 99%로 이루어진 포물러가 피부에 탄력을 주어 더욱 생기 있고 건강한 피부를 선사한다. 문의 02-2054-0500

* 김하얀(40대 지면), 성정민(30대 북한성), 김지현(20대 지면)

RALPH LAUREN